

**담당 : 홍보팀 임정수 차장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’ 3R 주요 선수 코멘트**

 **홍정민, 노승희, 이채은2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메디힐 · 한국일보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8월 14일(목) ~ 8월 17일(일) |
| 3 | 장 소 | 몽베르컨트리클럽 [가을(OUT) / 겨울(IN)]  |
| 4 | 주 최 | 메디힐, 한국일보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610야드-예선, 6,544야드-본선 |
| 8 | 참가인원 | 123명 |
| 9 | 주요출전선수 | 박지영, 이예원, 박현경, 방신실, 홍정민, 노승희, 이동은, 고지우, 이가영김민선7, 김민주, 정윤지, 박혜준, 배소현, 유현조, 김시현, 송은아, 서지은이다연, 김아림, 안나린, 최혜용, 성아진(A)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30분[2라운드] 11시 ~ 17시30분[3라운드] 09시30분 ~ 16시[최종라운드] 09시30분 ~ 16시 |

**◈ 홍정민, 3라운드 중간합계 22언더파 194타(65-64-65) \*6타차 단독 1위(3라운드 종료시점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50>

**Q. 오늘 경기 소감**

너무 더워서 전반에 조금 힘들었다. 천천히 가자는 마음으로 쳤는데 후반 들어 운 좋았던 샷도 나오고 타수를 잘 쌓을 수 있었다.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하루다.

**Q. 아쉬웠던 것과 만족했던 것?**

전반에는 생각보다 페어웨이를 잘 못 지켜서 아쉬웠고, 후반에는 생각보다 잘 지켜내면서 만족했다.

**Q. 터닝 포인트?**

10번 홀이다. 10번 홀에서 만들어 낸 칩인 버디로 흐름이 좋아졌다.

**Q. 72홀 최소 스트로크 기록이 23언더파다. 알고 있었나?**

몰랐다. 늘 여기서 기록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다. ‘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’이라 박민지 언니가 그랬던 것을 봤다.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깨 보겠다.

**Q. 내일 각오?**

오늘 아쉬웠던 것이 전반 파5에서 기회를 못 살린 것이다. 내일은 파5에서 기회를 잘 살려서 타수 줄여 나가는 플레이를 하겠다.

**◈ 노승희, 3라운드 중간합계 16언더파 200타(66-68-66) \*단독 2위(3라운드 종료시점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113>

**Q. 오늘 코스레코드를 경신한 소감은?**

오늘 3퍼트 2개 기록하면서 아쉬움이 있지만, 중거리 퍼트가 잘 돼서 버디를 많이 잡아내 좋은 결과를 냈다. 만족하는 하루다.

**Q. 퍼트가 제일 아쉬운가?**

그렇다. 퍼트감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번 대회 중장거리 버디 찬스에서 오늘까지 3퍼트가 총 4개 나왔다.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, 집중력의 문제였던 것 같다. 아쉬움이 남는다.

**Q. 1개 라운드 남았는데 보완할 것이 있다면?**

날씨가 더운 상태에서 라운드를 계속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있다. 그 때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잔 실수가 나오더라. 샷과 퍼트감이 나쁘지 않으니 오늘 잘 먹고 잘 쉬고 체력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.

**Q. 목표?**

타수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, 목표는 늘 우승이다. 최선을 다하겠다.

**◈ 이채은2, 3라운드 중간합계 15언더파 201타(67-69-65) \*공동 3위(3라운드 종료시점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8811>

**Q. 오늘 경기 소감?**

오늘 전체적으로 샷 잘 되고 마무리 퍼트까지 잘 됐던 만족하는 하루다. 하나 아쉬웠던 홀을 꼽자면 4번 홀이다. 어프로치 실수가 나왔지만 운이 따라주면서 파 세이브 잘 됐다.

**Q. 오늘 잘 된 것?**

샷도 나쁘지 않았는데, 오늘 4M 이상 되는 중장거리 퍼트가 잘 떨어졌다.

**Q. 타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승 노려볼 수 있는데?**

스폰서 대회이고, 코스는 다르긴 하지만 2022시즌에 이 대회에서 준우승했던 기억도 있어서 우승하고 싶다. 제일 우승하고 싶은 대회라 욕심이 나기도, 부담되기도 한다. 회장님도 2등 많이 했으니 이번에 우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최대한 편하게 치겠다.

**Q. 정규투어에서 첫 준우승을 기록했던 대회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?**

그렇다. 사실 2022시즌 이 대회 전까지 성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에 대한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다. 그 때 이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다시 골프에 집중할 수 있었고, 지금까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다. 나에겐 의미가 큰 대회다.

**Q. 내일 우승 경쟁을 위해 연습을 더 할 것인지?**

너무 더워서 퍼트 연습 조금만 하고 들어가서 푹 쉬겠다. 내일도 퍼트에 집중해서 플레이하겠다.

**Q. 최근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은데,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지?**

최근에 쇼트 퍼트가 잘 안됐다. 쉬는 동안 퍼트 연습 많이 했고, 운동해서 그런지 거리가 늘어 이번 대회 플레이하는 데 도움이 됐다.

**Q. 내일 각오?**

부담되고 떨리겠지만, 이겨내 보겠다.